

‘한반도 대운하’ 이름 바꿀까 말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자신의 제1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명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환경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당부분 이름이 주는 토목·건설 이미지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차제에 ‘개명(改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대운하 공약은 처음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경부운하의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면서 일부 구간엔 인공운하를 건설하는 것인데 모든 구간이 인공하천 오프라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의 최장 구간인 경부운하의 경우 총연장 540km 가운데 인공운하 건설 구간은 조영 인근 약 40k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강과

한나라 이명박 후보 제1공약 명칭 싸고 논란

인공운하 구간 40km 불과...친환경 개명 검토

낙동강의 하상을 정리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명칭만으로 보면 540km 전체가 인공하천 오프라인 소지가 있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김형우 위원장도 “대운하는 경제적 효용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초기단계 마케팅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명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이 후보측은 ‘인공수로’를 뜻하는 ‘운하(canal)’ 대신

‘뱃길살리기’ ‘물길잇기’ 등 몇몇 친환경적인 공약명을 놓고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륙운하가 발달해 있는 유럽의 경우 ‘운하’라는 용어 대신 ‘내륙수로(Inland Waterway)’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공약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말 본격적 대권행보를 시작한 이후 1년여 사용돼온 ‘대운하’라는 공약명을 바꾸는 것이 이 후보로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대표 공약으로 자리를 잡은데다 선불리 고칠

경우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외곽정책자문기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김영우 정책국장은 “공약명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물길잇기’ 등을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에서 한반도대운하추진본부장을 맡았던 박승환 의원은 “내부적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고 국민공모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다만 공약 명칭을 바꾼다고 정치적 공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논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北, 테러는 자살행위 잘 알고 있을 것”

DJ, 訪美 연설서 강조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한미간 갈등과 한국차기 대통령의 국정지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함구하거나 알듯 모를 듯한 선문답으로 예봉을 피해나갔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어떤 도전에 직면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3단계 통일방안을 설명하면서 “민감한 차기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은 남북간 평화를 유지해 살아가는 평화공존 정책을 하려는 게 중요하다”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동질성 회복,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훈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테러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연설을 마친 뒤 NPC 뉴스메이커위원회 부위원장인 피터 히르먼에게 감사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을 옹호했다고 공개 선언했고 상당기간 테러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테러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으로 본

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좌파정권 원조’라는 미국내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오해를 불식하는데 주력했다. /연합뉴스

여권은 비난, 한나라는 두둔... ‘이상한 청문회’

이규용 환경장관 인사청문회 ‘위장 전입’ 추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이규용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갈과 도덕성,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가 국민의정부 시절 낙마한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와 겹치면서 청문회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홍준표 원내위원장은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학교를 전학한 이유와 내용을 얘기하라. 다른 분들도 계속 물을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내용을 얘기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

다”며 이 후보자에게 먼저 해명하기를 권했다. 이 후보자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한 학교에서 폭력사건 피해자가 됐고 중학교는 먼 곳에서 국민의정부 시절 낙마한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와 겹치면서 청문회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신당 제종길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건 인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홍 위원장은 “부인이 위장전입한 것이지만 본인만 한 게 아니다”고 설명하다가 제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이 변호인이나”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홍 위원장은 “장상 총리 서리는 아들의 미국 국적,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고 장대환 서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혜대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전에 문제된 공직후보자들과 이 후보자의 차별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이경재 의원은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은 문제제기하면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가벼운 사안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당분회 의원만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세 차례나 있었던 데 국회가 왜 이렇게 관대한 지 의아하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수의 국민은 허탈해질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盧대통령, 정상회담 후 귀경 때 개성공단 방문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경할 때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 이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4일 귀

로 시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우리 측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측과 협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협력은 물론 참여정부 기간 남북관

계 발전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방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개성공단 방문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털 예쁜 여자가...”

후 여성비하 발언 논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이른바 ‘마사지 걸’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부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만찬을 하던 도중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에 갈 때 털 예쁜 여자를 골라야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한다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민주신당과 여성계는 연일 논쟁을 내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19일엔 청와대까지 나서 “실망을 넘어선 충격”이라고 성토했다.

고재순 균형인사서비스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의 여성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45년전 우리 선배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 데-”라면서 “그걸 직접 안 들은 사람들이 막 기사를 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19일 법률구조공관에서 ‘신용불량자가 다시 웃는 사회’를 주제로 열린 타운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700만 금융소외자 경제활동 돕겠다”

이명박 ‘신용 회복 프로그램’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9일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 및 대통령직속 자활지원 특별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초동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신용불량자가 다시 웃는 사회’를 주제로 4번째 타운미팅을 갖고 “우리나라가 중산층은 없어지고 양쪽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갈라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이 된다고 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소외자가 300만명 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소위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회복지키고, 금융소외자 300만명의 사재를 정상금융거래로 돌려 장기간 저리이자로 쓰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현 정부는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일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측은 앞서 배포한 정책자료에서 “금융소외계층 해소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대규모 대안 금융시스템과 자활대책의 유기적 결합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신 금융정책지원 후 자활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정책지원’을 통해 신용회복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프로그램은 단계적 긴급 대책으로 ▲사업자의 불법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이반 정기국회에서 악질적 빚 독촉 방지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추진 ▲채권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방지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본원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 529-8111

죽집계일일총정리단기특강 10월 3일~10월 23일(지정좌석제)

| | | |
|---------------------------|----------------------------|---------------------------|
| 민법: 이광수 교수 (4일, 11일) 2일완성 | 공법: 이상호 교수 (6일, 13일) 2일완성 | 공시: 안재규 교수 (5일, 12일) 2일완성 |
| 민법: 백 현 교수 (21일) 1일완성 | 공법: 백문환 교수 (19일, 20일) 2일완성 | 공시: 정해룡 교수 (23일) 1일완성 |
| 개론: 신희호 교수 (8일, 15일) 2일완성 | 중개: 홍덕기 교수 (3일) 1일완성 | 세법: 이재정 교수 (9일, 16일) 2일완성 |
| 개론: 전병석 교수 (22일) 1일완성 | 중개: 정인석 교수 (14일) 1일완성 | 세법: 강성규 교수 (7일) 1일완성 |

공인중개사전문! 새롭 행정고시학원 본원 361-8111
 >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전국합격률 1위! 새롭 공인중개사전문학원 본원 529-8111
 > 계림동 구시청사거리 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전액국비수강생모집
 귀하의 경쟁력을 높여 드립니다!!

컴퓨터 • 수시개강

| 훈련과정 | 훈련내용 | 훈련시간 |
|-------------|----------------------------------|---------------------|
| 컴퓨터활용실무 | 윈도우XP, 워드, 인터넷, 파워포인트, 엑셀, 파워포인트 | 월, 수, 금 18:10~21:00 |
| CAD | 2D, 3D, ATC, 차체조립과정, 건축제도, 기계제도 | 월, 수, 금 19:00~21:00 |
| MOS(Master) | MS Office 응용프로그램 | 월, 수, 금 19:00~21:00 |
| 정보통신심비 | 기사(산업기사) 자격증과정, 네트워크과정 | 월, 수, 금 19:00~21:00 |
| 정보처리 | 기사(산업기사) 자격증과정, 프로그래밍과정 | 월, 수, 금 17:00~21:00 |
| 정보회기초1 | 윈도우XP, 워드, 인터넷 | 화, 목 19:00~21:00 |
| 정보회기초2 | 엑셀, 파워포인트 | 월, 수, 금 19:00~21:00 |

부동산실무

| 훈련과정 | 훈련내용 | 훈련시간 |
|-------|----------------------|---------------------|
| 공인중개사 | 제19회시험(2008년 시행) | 주, 수, 일 19:00~21:00 |
| 주택관리사 | 제11회시험(2008년 시행) 대비반 | 주, 수, 일 19:00~21:00 |

6개월과정 합격보장 특별반 접수중!!
 ※ 대상 : 고졸보통에 가입 재직자 또는 일반인
 ※ 훈련수료후 개인별 환급(노동부)
 ●노동부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사실

현대 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공무원 1800여명 율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화 집중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검출직, 물리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개강 : 10월 1일 주·야 (휴말)반 모집 (현재상당원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10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이상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상학,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립대 면접반 **약대, 한의대 면접반**

MEET/ DEET 기출문제반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8088